

제주 코로나 소규모 감염 여전

13일 추가 확진자 1명 발생... 3월 들어 매일 감염 14일 기준 누적 확진 606명... 자가격리자는 946명

3월 들어 제주지역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 방역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하루 동안 127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1명(606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이달 들어 도내에서 13일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3월 누적 확진자 수는 36명으로 늘었다. 또 올해 들어 18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지난해 2월 첫 환자 발생 이

후 총 누적 확진자 수가 606명으로 증가했다.

606번은 제주도민으로 지난달 28일부터 28일까지 부산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부산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606번은 3월 1일 부산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통보 받고, 이때부터 도내 한 시설에서 자가 격리를 이어왔다.

606번은 자가 격리 직전 최초 검사에선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지난 13일 받은 진단검사서에서 양성으로 판정됐다.

606번은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상태로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에서 격

리 치료를 받고 있다. 도방역당국은 606번이 격리 기간 도중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별도의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확진자가 다녀갔던 제주도 일도2동 리치 피시방의 방문객과 직원 등 86명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8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14일 5명의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함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기준 제주지역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30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날 기준 자가격리자는 946명(확진자 접촉자 706명, 해외입국자 240명)으로 나타났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봄이다...”... 개나리 만개 따뜻한 날씨를 보인 14일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에 개나리가 만개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상민기자

여행사 한달 5개소폴 폐업 올 2월 기준 1065개소... 1년 새 54개소 줄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도내 여행업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등록 관광사업체 수는 2062곳(제주시 1519곳, 서귀포시 543곳)이다. 지난해 동월 기준 2050곳(제주시 1523곳, 서귀포시 517곳)과 비교하면 도내 관광사업체는 1년 새 22곳이 줄었다.

특히 여행업체는 올해 2월 기준

1065곳(제주시 995곳, 서귀포시 70곳)으로 전년 동월 1119곳(제주시 1050곳, 서귀포시 69곳) 대비 54곳이 사라졌다. 이중 국외 여행업은 지난해 2월 147곳에서 올해 130곳으로 감소했다.

반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도내 관광편의시설업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기준 도내 관광편의시설업은 356곳(제주시 190곳, 서귀포시

166곳)으로, 지난해 2월 291곳(제주시 144곳, 서귀포시 147곳)과 비교해 65곳이 늘었다.

특히 도내 관광식당의 경우 150곳(제주시 91곳, 서귀포시 59곳)에서 192곳(제주시 121곳, 서귀포시 71곳)으로 1년 사이 42곳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업계 종사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지역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방역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광수요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조금씩 내수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국토부, 제주공항 여객기 접촉사고 조사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여객기가 이륙 전 충돌 사고 후 사고를 파악하지 못한 채 운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제주국제공항 계류장에서 발생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항공기 간의 지상 접촉 사고와 관련해 현재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

후 4시50분쯤 제주공항 국제선 계류장에서 제주항공 7C606편과 에어서울 RS906편 항공기가 스치며 충돌했다. 그러나 두 비행기 모두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비행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일부터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의류수거함 방화 집유 1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4시 41분쯤 제주도 모 성당 인근 의류수거함 앞에 놓인 박스를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박스 안에 있던 삼베가 소실된 데 이어 불길이 의류수거함에도 번졌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 4·3-여순 10·19 평화교육 ‘맞손’

제주-전남교육청 업무협약 체결·학습·계기수업 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주4·3’과 ‘여순(여수·순천)10·19’를 잇는 평화·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제주도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여수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여순10·19 및 제주4·3 평화·인권교육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해 부군남 제주도의회 교



육위원장, 강철남 제주도의회 제주4·3특별위원장, 오임중 제주4·3 희생자유족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에서는 장석웅 교육감과 유성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박

진권 전남도의회 여수·순천10·19 사건 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교에서 제주4·3 및 여순10·19 평화·인권교육 관련 기념행사, 계기수업, 체험학습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4·3 및 여순10·19 평화·인권교육 관련 연수, 체험학습 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학교에서 두 지역을 경유하는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을 계획할 시 제주4·3 및 여순10·19 평화·인권교육 관련 테마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미얀마 민주화 항쟁 적극 지지”

제주청년들 12일 성명

최근 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탄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주 청년들이 “미얀마의 민주화 항쟁을 지지하며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청년노동운동 연합비울리오와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은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정부는 미얀마 군부 반란세력에 강력한 외교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부 반란세력은 온갖 폭력을 동원해 민주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오늘도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군부독재에 의한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국정부는 강력한 외교제재를 취하기는 커녕 방관만 하고 있다”며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촛불혁명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낸 한국의 민주시민 또는 청년으로서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시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정부를 포함해 UN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군부 반란세력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한 피켓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접촉사고로 불법운항 들통

안전검사 기간이 만료된 채 부산에서 추자도까지 운항한 예인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1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8시30분쯤 추자면 신양항 내 입항한 예인선 A호와 계류중인 여선 B호끼리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출동해 사고현장 및 선박서류를 확인하던 도중 A호의 항해갑사중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A호가 지난 8-10일 사흘간 부산에서 추자도항까지 약 160해리(296km)를 운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장 D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강민성기자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에폭시/우레탄 도막제거

표창장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이사장 직책회
귀하는 자조자립협회의 활동조항 실천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수상공인 활동을 칭찬하고 경직된 케고베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주변미생연구원 박영

제주대 중앙도서관 도끼다시바닥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 723-3090 010-5678-2586

신화역사공원 YG

대형 상가매장

월정리 카페

냉동창고 콘크리트 폴리싱

영성미디어센터

종달리 카페

동아타운 물류센터